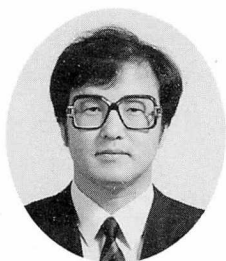


냉동돼지고기 수입 이렇게 대처하자

생산부문

자동화 시설과 주간관리체계 도입 필요



김성훈 박사
((주)제일종축 농장장)

시장이 개방된다는 것은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무서운 시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개방에 대비한다는 것은 경쟁력을 기른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생산비를 줄이는 것이다.

실제 농장에서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제도적인 것 이외에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그리 크지가 않다. 사료의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다든지 수출 장려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것으로 생산부문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다.

생산부문에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데 그

한가지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같은 조건에서 생산량을 늘려 원가를 분산시키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경영의 합리화로 단위당 투여되는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이다.

1. 생산성 향상

양돈장의 생산성 향상은 종돈장과 비육농장의 역할이 따로 있으므로 해서 가능하다. 종돈장이 매년 종돈을 수입하여 수입종돈의 증식판매에만 신경을 쓰게 된다면 종돈시장은 곧바로 양돈선진국에 예속되게 될 것이고 국내 종돈장의 기반이 없어질 것이다. 물론 종돈장은 능력이 우수한 종돈을 계획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계획적으로 수입한 종돈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량하여야 하고 각 종돈장은 이렇

게 개량된 능력이 우수한 종돈의 유전능력을 공유할 수 있는 공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비육농장은 위와 같은 종돈장에서 구입한 종돈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돈보다 능력이 우수한 종돈을 생산에 이용해야 한다. 우선 급한 것은 현재 우리 농장에 보유하고 있는 종돈의 유전적능력이 우수한 가를 판단해야 한다. 종돈의 능력이 떨어진다면 지금부터라도 종돈을 교체해 나가야 한다. 종돈의 능력이 우수하다면 농장의 생산성 향상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사양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유후 4~6일에 발정이 재귀하는 모돈의 다음 산차의 분만율 산자수 등 번식성적이 우수한 것이 확인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 농장의 생산성 향상목표를 이유 후 “발정재귀일령 4~6일”로 정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포유기간 동안의 모돈관리, 임신모돈의 사양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유 후 4~6일에 발정이 재귀하는 모돈의 비율을 높이는 등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밖에 현재 하고 있는 사양관리 체계를 다른 농장과 비교하여 받아들일 것은 바로 우리 농장에 적용하는 것도

생산부문에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데 그 한가지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같은 조건에서 생산량을 늘려 원가를 분산시키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경영의 합리화로 단위당 투여되는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이다.

필요하다.

2. 경영의 합리화

우선 농장의 생산체계를 단순화시켜야 한다. 종돈장은 보유 품종수를 줄여야 하고 비육농장은 자체 종돈 생산용 순종을 몇 두식 보유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단일 품종을 사육하고 단일 품목을 생산하는 것이 수익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 생산체계를 단순화 한 후에는 생산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 급여하는 인건비보다 각 개인에게는 더 많이 지급할 수 있으면서도 전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과감하게 투자해서 자동화 시설을 도입해야 하며 주간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자 1인당 관리 두수를 높여야 한다.

현재 일하고 있는 관리자의 전문을 넓혀주는 교육도 필요하다. 외국연수도 필요하지만 국내 다른 양돈장과의 정보교류도 중요하다. 서로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합심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옛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돼지, 사료, 시설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있다. 우리 자신의 돼지 사양관리에 대한 경험에 너무 집착해서는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야말로 우리 양돈인들이 모두 하나될 수 있는 기본이고 그렇다면 냉동육 수입이 그리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다. **■**